



| 특집 | 북극해항로 운항 | 북극해 인프라 | 자원개발 | 북극해 비즈니스 | 국제협력 | 기후변화 |

[특집]

러시아 북극해 개발에 있어 Sabetta항의 중요성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IAL) 2016. 9. 5

1. 북극해 Yamal 지역 Sabetta항의 주요 기능

1) Sabetta항은 주로 Yamal LNG Project 관련 LNG 수출항 역할

- 2017년 첫단계 생산 개시 이후, 단계적으로 총 1,650만톤의 LNG 수출항이 될 것이며(야말반도 South Tambey 가스전), 동시에 120만톤의 Gas condensate도 수출될 것임. 향후, Yamal LNG 플랜트에서 야말반도 소재 여러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의 액화처리를 담당하여, 2020년에는 연간 3천만톤 이상의 LNG를 생산하게 될 것임.

2) 사베타 항의 전략적 위치

- 야말반도 Ob만 서안에 위치한 사베타항은 여름 시즌동안 아태지역 항만으로 NSR을 따라 동쪽으로 LNG 수송을 용이케 해줄 것임. 서쪽인 유럽으로는 연중 내내 LNG운반선이 운항하게 될 것임.

3) 러시아 북극해항로 상의 물류거점으로서 다목적 터미널 역할

- 사베타항 건설에 파이낸싱을 제공하는 러시아정부에 따르면, 향후 Sabetta항의 물동량은 탄화수소자원과 광물자원을 포함, 연간 7천만톤까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2. 사베타항은 철도 인프라 연결로 북극의 물류허브가 될 것임

1) 북위도 철도(NLR) 건설로 사베타항까지 철도 연결

- 러시아철도회사들(J/V Yamal Railway)과 야말로-네네츠자치정부간에 북위도 철도 (NLR: Northern Latitudinal Railway)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완공하기로 협약 체결. '북위도 철도'는 우랄 북부지역의 탄화수소자원산지를 연결하여, 사베타항으로 자원수송을 할

수 있게 될 것임.

- 러시아교통부 소콜로프장관에 따르면, 2020년까지 러시아의 동부와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총 707km의 북위도 철도(NLR)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푸틴대통령은 BAM과 TSR이 이 철도를 통해 사베타항에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2015.12.22.).
- 야말네네츠자치구 주지사 Koblkin씨에 따르면, 2017년에 170km거리의 야말 Bovanen-kovo와 사베타항간의 철도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석유와 가스회사의 자원수송을 위해서 사용될 것임.

3. Sabetta 항 건설의 의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의 성공사례

- 사베타항은 Novatek (러시아 제2의 민간 가스생산회사), 민간 투자자들과 러시아정부 간의 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로 추진된 사례임. 러시아 정부, 야말네네츠 지방정부 등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인 Yamal LNG 회사(러시아 제2 가스회사 Novatek, 프랑스 Total, 중국 CNPC 등)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된 것임.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의미 : PPP는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해결하고, 리스크를 공유할 목적으로 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장기 상호호혜의 협력 형태로, 주로 인프라나 의료, 교육 분야에서 이뤄지는 추진 형태임.

4. 러시아정부가 Yamal LNG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배경

1) Yamal LNG 프로젝트는 매우 정치적인 프로젝트임

- Yamal LNG는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임. 과거 20년간, 러시아는 LNG산업을 발전시켜, 수출을 다변화하고 유럽시장에의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음. 사할린2 프로젝트를 예외로, 러시아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완공되지 못했음 : 하라사 베이(Kharasavey), 발틱 LNG, 스톡홀름 프로젝트 등이 중단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 수출은 현재 러시아정부의 최우선순위임.

2) Yamal 프로젝트 추진 목적

- 1) LNG 수출량 증대, 2) 새로운 시장에서의 진입 및 전세계 시장 확보, 3) 낙후된 지역의 개발 (특히, 북극과 극동 같은 중요한 지역들), 4) 기술현대화 촉진 및 관련 산업 발전 (조선 같은 우선 산업 포함), 5) NSR의 전략적 중요성 주장, 6)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
- 유럽과 아시아시장 모두 북극해항로(NSR)를 통해서 접근 가능함. 겨울(11-6월)에는

서쪽 항로로, 나머지 여름 기간에는 동쪽의 항로로 수송가능 함. 그렇지만, LNG는 겨울기간동안에도 유럽 경유 아시아로의 연중 수송이 가능하므로, 실제 모든 시장으로 수송될 수 있을 것임.

- Yamal LNG는 장기 계약으로(Engie, Shell, CNPC, Gas Natural Fenosa) 유럽과 아시아의 소비자에게 모두 LNG를 사전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를 매듭지었음.
- Yamal LNG에는 Sabetta항, Sabetta 국제공항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 하수처리장, 도로, 연료저장소, 유틸리티, 주거지역, 발전소, 쇠빙선단 건조 & 운영, LNG 유조선단 (연간 200회 운항)이 있음. 이러한 모든 목표들을 달성하려면, 정부로부터 금융, 환경비용, 항만, 해로 channel 등의 강력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했음. 무엇보다 정부로부터의 필수적인 지원은 세제 혜택과 LNG 수출 자유화 두 가지였음.
- LNG 수송은 노바텍에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였음. 한 가지 대안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에 가스를 판매하려 했으나, 유럽과 아시아로의 가스 파이프라인 수송권을 독점하고 있는 가스프롬은 그런 제안을 거절했음. 미래에, 노바텍은 계속 가스프롬의 유럽으로의 가스수출 독점에 도전하게 될 것으로 보임.

5. 북극물류연구소(IAL) 평가

- 사베타항은 명실공히 야말지역, 우랄/시베리아지역의 천연가스, 석유 및 광물자원의 해상운송 거점과 다목적 터미널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임.
- 사베타항으로 철도가 연결되면, 우랄, 시베리아 및 전체 러시아에 연결되어, 북극해항로가 우랄, 시베리아 북부지역의 생산품을 외부 시장으로 수송하는 해상교역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철도 인프라 건설을 기한 내에 완성하기 위한 철도회사, 지방정부의 예산 조달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야말반도 옆에 위치한 기단반도에서 노바텍이 계획 중인 'Arctic LNG' 프로젝트 역시, 향후 Yamal LNG Plant에서 1,650톤의 LNG를 생산하여 사베타항을 통해 수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야말반도에 Bovanenkovo 등의 가스전을 운영중인 Gazprom사 역시, 미래에 일부 천연가스 물량을 LNG로 액화처리하여 Sabetta항에서 수출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출처: www.thebarentsobserver.com. 2015.12.22. www.arctic.ru. 2015.8.7.
www.frstrategie.org. 2016, www.ctu.kz. www.think-railways.com Nov 19,2015
FSR(2016), Dr. L.Brigam, The Realities and Challenges of Russia's
Northern Sea Route. Mar 06, 2016.

<북극해항로 운항>

○ 한국, 북극해항로 경유 복합운송으로 카자흐스탄에 화학 반응기 운송

▶ 북극해항로를 통한 한국 석유화학 반응기 2기(총 6백 톤)의 첫 번째 출하가 울산항에서 있었다고 서울주재 러시아무역대표부가 러시아 TASS통신에 전함.

동 작업은 2015년부터 사전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물류회사인 'SLK KUKBO'와 'Global Engineering Technology'사 간에 NSR 노선을 통한 화물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 북극해항로 이용 가능성은 한·러 양국의 주요 협력 분야 중 하나이며, 북극해지역에서의 국익 추구위한 러시아정부의 최우선과제 중 하나라고 동 대표부 직원이 강조함.

북극해항로를 경유한 최첨단장비의 운송은 한국에 있어 최초임. 현대중공업이 제작한 'Global Engineering Technology'사의 탄화수소의 촉매 탈수소화 반응기는 카자흐스탄 파블로다르 석유화학공장으로 운송될 것 임. 북극해항로를 경유하기 위해 'SLK KUKBO'사는 네덜란드에서 특수선 'Happy Dover'호를 용선하였음. 동 선박은 7월 17일 울산항을 출발하여, 사베타항에 8월 15일 입항할 것임. 이후 러시아 운송물류회사 'Irtysh' 해운회사가 ob강 등의 내륙수로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Pavlodar항까지 8월 25일에 운송할 계획임. 최종적으로는 9월 하순에 도착 예정이라함. 동 운송이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한국의 운송물류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북극해항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대표부 직원이 말함.

출처: <http://tass.ru/> 2016.07.18.

○ <야말 LNG> 프로젝트 모듈, 중국에서 야말 반도로 출발

▶ 중국 우창조선(Wuchang Shipyard Co.)에서 제작된 총 중량 7천 톤의 <야말 LNG> 프로젝트 액화천연가스 플랜트 모듈 3기를 적재한 선박이 중국 칭다오항에서 야말 반도로 출발함. 야말 지역의 극한의 자연조건으로 인해 현지에서의 건설 공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몇 개의 모듈을 만들고, 야말 반도에서 조립하기로 계획되었다고 russian.news.cn에서 전함. 동 조선소는 <야말 LNG> 프로젝트 모듈 6개(총 중량 12만 톤)를 제조함. 1년에 약 16.5백만 톤의 LNG 가스를 생산할 동 공장의 가동 시 매년 3백만 톤의 LNG 가스가 중국으로 공급될 것임.

출처: <http://www.yamal.org/> 2016.07.27.

○ Sovfracht'사, 북극해항로 tariff guide 정비

▶ 북극물류지원을 목적으로 러시아 국방부가 'Sovfracht'사, 'Oboronlogistika'사, 'FESCO(극동해운회사)'를 통합한 컨소시엄을 조성하여 민간 선박 95척(총 선복량 1백만 톤이상)과 6개 항구를 통합함.

'Sovfracht'사는 북극해항로 서부지역 해상작업 본부의 기능을 수행할 것임.

컨소시엄과 'Sovfracht'사의 주요 과제는 단일화물운송루트와 연방반독점청의 승인 후 상업화물들과 국가조직의 가격정책에 표준이 될 수 있는 tariff guide을 다듬어서 도입하는 것이라고 드미트리 푸림 'Sovfracht'사 대표의 말을 회사 홍보실이 전함. 북극의 임의 출·도착지까지의 모든 가능한 수수료, 하역방법, 화물종류를 고려한 화물운송료의 효율정책의 토대로 우리 회사의 tariff guide이 채택될 것이라고 푸림 사장이 명확히 말함.

향후 동 guide을 사용하고, 대체 노선들 및 공급방법을 선택할 권한과 독자적으로 운송수단들을 용선할 권한을 가지게 될 관련 부처, 화주들, 물류시장 참여자들을 동 업무에 참여시킬 계획임.

통합물류상황센터의 위치 및 내부단위가 이미 정해졌으며, 본부는 모스크바, 서북지역과 극동지역 해상운송관리 센터는 아르한겔스크와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할 예정이라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장관이 말함.

출처: <http://www.rus-shipping.ru/> 2016.07.28.

○북극해항로를 통해 유럽으로 석유 백만 톤 반출

▶NovyPort 석유 백만 톤이 북극해항로를 통해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공급됨. Vorota Arktika 석유 선적·수출터미널의 운영 개시 이후 5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카멘니 곳에서 Arc5급 탱커 10척이 출항함으로써, 원유 반출량이 현격히 증가함.

채굴량과 야말 반도에서의 운송 규모의 계획적인 증가는 <Novy Port>프로젝트 개발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임. 동 프로젝트의 성공은 석유 해상운송지원에 운용되는 특수선박의 수적 증가, 기존 기술력의 확장, 석유의 준비·수송을 위한 신규 시설들의 운영개시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음.

동 프로젝트를 위해 Arc7급 탱커 6척, Icebreaker 8급 22 Mvt 디젤-전기 쇄빙선 2척이 건조될 계획임.

출처: правительство.янао.рф 2016.07.07.

○중국은 NSR 운항에 내기를 걸고 있다

- 2016년 상반기 북극에서의 기온과 최소 해빙 기록을 나타낸 결과로 에너지와 상품가격의 하락과 국제적 경제 불확실로 인한 침묵 가운데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해상 경로에 대한 토의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의 한 사례가 이번 여름 NSR에서 중국의 증가된 해양 활동임. 2013년과 2015년 NSR을 통한 2회의 성공적 항해를 마친 중국의 COSCO에 의해 운영되는 다목적 화물선인 Yongsheng호가 7월말 세 번째 항해를 시작하였음. 이번에는 풍력설비를 포함한 화물을 영국까지 배송하는 것임. 이 항해는 작년 COSCO가 중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 간의 무역 증진을 위하여 NSR 운항 횟수를 점진적이고도 꾸준하게 늘릴 것이라고 공표한 후 이루어지는 것임.

- Yongsheng의 항해가 끝이 아니고 COSCO는 최소 2대의 다른 화물선이 여름이 가기 전에 NSR 항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이번 주 최근 건조된 화물선 Tianxi호가 북시베리아의 Vil'kitskogo 해협 근처에서 가동 중임. 또한 증량물 선박 Xiazhiyuan6호가 현재 Tianjin에서 건조 중인데 8월말 전까지 사베타항에 도착할 것으로 기대됨. 이 선박의 임무는 Yamal LNG 프로젝트의 부품을 배송하는 것임. 또다른 증량물 선박인 Guangzhou 기반의 Xiangyunkou호도 가까운 장래에 NSR을 이용할 것이라고 함. 이와 같은 선박들은 NSR을 이용한 그들의 최초 항해로써 one-way 항해가 될 것이며, 이번 여름 현재까지의 우호적인 얼음조건을 이용하고자 함.
- 이러한 항해들은 COSCO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Yongsheng-plus"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초석이 될 것임. COSCO의 북극항해 계획은 2013년 최대 기록을 세운 후 NSR을 이용하는 선박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향후 NSR항해의 잠재적 확대를 위한 낙관적 접근을 시사함.

출처: China and the Northern Sea Route: Placing their bets, by Marc Lanteigne, The Arctic Journal, Aug. 25, 2016.

<북극해 인프라>

○ 사베타항, 서유럽과 카자흐스탄의 연결고리

▶ 야말-네네츠키 자치구의 사베타 항이 2016년 처음으로 서유럽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장비들의 검문소가 될 것임. 카라해 오브만 서쪽연안에 위치한 동 항구는 가스출하를 위해 특화된 항구로서 구상되었음. 현재 우랄지역에 해양관문들이 생겨나고 있음. 한 물류회사가 대형 건설 장비를 동 항구를 통해 서유럽으로부터 카자흐스탄으로 반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체슬라브 골로스코코프 우랄 관세청 청장이 TASS 기자에게 말함.

이후, 바지선에 실린 화물은 Irtysh 강(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를 흐르는 강)과 Ob 강(Irtysh 강으로 유입되는 왼쪽 지류)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감. 이 독특한 작전이 우랄 지역 전 물류역사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청장이 덧붙임.

이러한 통과운송(transit)은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의 또 하나의 단계가 될 것임. 만약 이란으로의 남-북 물류 노선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면, 전망은 매우 흥미로워 질 것이라고 청장이 설명함.

2015년 8월에 운영 개시한 사베타 항을 통해서 작년에만 570,000 톤 이상의 화물이 지나갔음. 이전에는 북극의 항구까지 해상 또는 헬기로만 도달할 수 있었음.

출처:/www.yamal.org/ 2016.07.11.

○ 중국, 최초로 북극해 운항용 쇄빙선 자체 건조

▶ 금년 하반기에 두 번째 쇄빙선의 건조를 시작될 것이라고 장난 조선소(Jiangnan Shipyard Co.)사의 말을 인용해서 리아 노보스찌가 전함.

동 쇄빙선의 건조 예산은 약 USD 153백만으로, 건조기간은 약 2년이며, 몇 개의 회사가 협력할 것임. 신조 쇄빙선의 길이는 122.5 미터이며, 2-3 노트로 최대 1.5미터 두께의 얼음을 부술 수 있어, 첫 번째 쇄빙선 '쉐룽'호에 비해 월등하다고 3월 초에 후 케이 동 조선소의 기술이사가 말한 바 있음. 중국은 우크라이나 Hersonskiy 조선소에서 건조된 Ice class의 연구조사선 '쉐룽'호를 1994년에 매입한 바 있음.

출처:<http://www.arctic-info.ru/> 2016.08.03.

○ 북극 항구들, 외국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 허용

▶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입국 허용 항구 목록을 확대하는 명령이 공표됨. 동 결정으로, 북극의 무르만스크 항과 아르한겔스크 항, 프리모리에 변경의 자루비노 항이 관광을 목적으로 여객수송 허가를 받은 페리(ferry)로 도착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항구의 목록에 포함됨. 외국인 관광객은 단체 관광객으로 동 항구들을 방문할 때, 동 지역에 비자 없이 72시간 체류할 수 있게 됨. 하선은 러시아가 인정하는 현행 신분증이 있어야 함.

출처:<http://www.arctic-info.ru/> 2016.08.02.

○ 'Severnaya Dvina'호, 북극 항만지원 준비완료

▶ 신형 준설선 'Severnaya Dvina'호가 연방국영단일기업 'Rosmorport'사의 아르한겔스크 지사에 인도됨. 동 준설선은 최소 10동안 운영될 것이며, 항내 수역 및 항구 접근 수로의 항행 안전지원과 최대 2미터 바다 밑의 흙을 제거하여, 아르한겔스크 항, 사베타 항 및 기타 북부지역 항구들의 수로, 운하, 묘박지의 수심을 깊게 하는 준설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TASS가 전함. '로스모르포르트'사 아르한겔스크 지사 소유의 특화된 신조선의 출현은 북극의 개발과 발전에 있어 그 의미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아르한겔스크 항으로의 선박 도선에 매우 중요하다고 바짐 크리보프 아르한겔스크 주 교통부 장관이 동 준설선의 국기 계양식에서 말함. 동 준설선은 금년 8월 초에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http://www.arctic-info.ru/> 2016.07.15.

○ 나리쉬킨, 무르만스크 수송망 개발프로젝트 중요성 역설

▶ 무르만스크 운송망(MTU) 개발프로젝트는 무스만스크市, 무르만스크州, 서북 숲지역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위대한 해상강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상 구축까지도 좌우한다고 세르게이 나리쉬킨 국가두마 의장이 주 대표들, 교통부 대표들과 함께 동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하면서 말했다고 리아 노보스찌가 전함.

무르만스크 운송허브는 탄화수소 운송 기지이자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과 거대한 물동량 구축을 위한 거점임. 이 지역에 북극함대 기지와 북극해항로의 시발점이 있고, 풍부한 북극 대륙붕 자원매장지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 동 운송망은 러시아 북극연안의 최대 운송망이며, 무르만스크항은 러시아 최북단의 부동항임. 동 프로젝트는 콜라만 서쪽연안의 석탄·석유터미널 신설, 철도인프라 개발과 동쪽 연안의 석탄터미널 복구, 컨테이너 터미널 신설 등의 총체적인 운송 인프라 조성을 포함하며, 민관협력으로 진행되고 있음.

출처: <http://tass.ru/> 2016.08.01.

○ 신세대 원자력 쇄빙선 'Lider'호 설계, 연내 착수

▶ 신세대 원자력쇄빙선 'Lider'호의 설계를 금년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세르게이 키리엔코 '로스아톰'사 사장이 말했다고 리아 노보스찌가 전함.

이 신형 슈퍼원자력 쇄빙선은 북극해항로와 북극 고위도지역에서 연중 내내 지원이 가능하며 draft design은 2015년에 마쳤고, 남은 것은 기술 설계임. 설계에 약 1년 6개월이 소요되고, 이후 파이낸싱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 알렉세이 라흐마노프 통합조선공사(OSK) 대표가 말함.

동 쇄빙선은 4미터 두께의 얼음에서 운용이 가능하고, 특수 임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 선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키리엔코씨가 전함.

출처: <http://www.morvesti.ru/> 2016.07.25.

○ 세계 최강 신형 원자력쇄빙선 'Ural'호, 용골거치식 거행

▶ 신형 프로젝트 22220 시리즈의 두 번째 원자력쇄빙선 'Ural'호의 용골거치식이 계획보다 약 2개월 앞서서 상트페테르부르크 발틱 조선소에서 거행되었다고 리아 노보스찌 기자가 전함. 동 프로젝트 22220의 원자력쇄빙선(리드선 'Arktika'호, 시리즈선 'Sibir'호, 'Ural'호)은 국가 국방력과 북극해항로 통과운송 경쟁력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세르게이 키리엔코 '로스아톰'사 대표가 말함. 동 프로젝트의 쇄빙선들은 북극에서의 러시아의 리더십 보장에 필수적임. 동 시리즈선들은 북극조건에서 최대 3미터 두께의 얼음을 파쇄할 수 있으며, 야말·기단 반도의 매장지와 카라해 매장지의 탄화수소 자원들을 아·태지역 국가들로 수송하는 선박들을 지원할 계획임.

출처: <http://ria.ru/> 2016.07.25.

<자원개발>

○ 중국, 기단반도 소재 <Artic LNG> 프로젝트 교섭진행

▶ 중국국영석유공사(CNPC)가 '노바텍'사의 두 번째 LNG공장 건설(<Artic LNG> 프로젝트) 관련 교섭

을 진행 중임.

우리 회사는 이미 <야말 LNG>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물론, 다른 프로젝트들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보게 된다면, 그런 가능성을 당연히 검토할 준비가 되어있음. <Artika LNG>프로젝트 관련 사전 교섭을 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국제관계부 부장이 TASS에 전함.

'노바테크'사는 <야말 LNG>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사베타항에 새로운 LNG 공장 건설(<Artic LNG>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액화용 가스는 Gydan 반도의 Salmanovskoe 매장지와 Geofizicheskoe 석유가스 콘덴세이트전에서 유입될 것임. 2018년에 시공할 계획임.

출처:<http://www.arctic-info.ru/> 2016.08.05.

○ 'Yamal LNG' 공장 1기, 공정률 76% 달성

▶'Yamal LNG' 공장 1기의 공정률이 약 76%이라고 마르크 쉘트베이 '노바테크'사 재무이사 겸 부대표가 화상회의 중 발언했다고 매체가 전함. 동 공장은 2017년에 가동 예정임. 완공에는 약 2십억 달러 규모의 용자가 2번 더 필요하다고 지도부가 말함.

출처:<http://pravdaurfo.ru/> 2016.07.29.

○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 돈스코이: 북극 대륙붕, 세계 자원균형 좌우할 것

▶유가로 인한 프로젝트들의 일시적인 지연에도, 북극 대륙붕은 전략적 발전분야로 남을 것임.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 자원 균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자원매장지가 바로 이 지역에서 개발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세르게이 돈스코이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자신의 Facebook 계정에서 말함.

러시아 북극 수역 및 대륙붕의 석유 탐사·개발을 위한 국가부양책이 시행되고 있음. 특히, 새로운 해상 자원매장지를 위한 세제특혜정책 채택되었으며, 대륙붕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질탐사작업 세금공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러시아가 이 부문에서 북극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다른 국가들은 프로젝트들을 연기하고 있다고 돈스코이 장관이 강조함.

대리 제재로 미국 'ExxonMobil'사는 '로스네프트'사와의 공동 프로젝트 10개 중 1개만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출처:<http://tass.ru/> 2016.07.11.

<북극해 비즈니스>

○ 북극 기업인들의 아이디어, 북극법에 반영

▶클라우드 소싱 프로젝트 «북극 비즈니스 세계 arctic business world»의 참석자들이 러시아 북극지역 발전 및 개발에 관한 사회·비즈니스 현안 주제들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이 시작되었음을 공표함. crowdspare.ru에 가입한 북극의 문제와 미래에 관심 있는 자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수한 아이디어 제공자는 상품과 국가북극발전위원회 산하 기업인 협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한은 7월 25일 까지라고 국가북극발전위원회 포털에서 전함.

동 프로젝트 참석자들은 현재 경제발전부가 연방회의 산하 남북극위원회와 공동으로 작성하고 있는 <러시아연방 북극존 발전에 관한> 법안에 어떤 항목과 조항들이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음. 이 외에, 북극해항로 운송 조직에 핵심 역할을 하게 될 단일 운송물류회사 콘셉트를 논의할 것이라 예상됨.

동 프로젝트에 이미 16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북극해항로와 북극 관광 및 북극에서의 기업활동 발전에 관해 약 400 개의 아이디어를 제출함.

출처: <http://ru.arctic.ru/> 2016.07.04.

<국제협력>

○ 북극 국제회의, 쇄빙선 '승전 50주년'호에서 개최 예정

▶ 러시아 푸틴대통령이 북극이사회 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들의 대표들과 외국 학회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북극해항로로 - 북극에서의 전략적 안정과 동등한 동반자 관계를" 회의를 8월 29일에서 9월 2일까지 원자력쇄빙선 '승전 50주년'호의 선상에서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률정보 사이트에 공표된 문서에서 전함.

회의 기간 동안에 동 쇄빙선은 아나디르 항(베링해 북쪽 아나디르 만 서북연안에 위치)에서 페백항(북극해항로 항구, 동시베리아해 차운스카야 만에 위치)까지 항행할 계획임.

동 회의의 준비와 진행에 러시아의 외무부, 연방보안청, 비상사태부, 내무부, 교통부, 천연자원부, 문화부, 경제발전부, 극동개발부, 연방민족청,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축치 자치구 정부가 참여함. 동 쇄빙선의 항행은 '로스아툼'사가 책임짐.

출처: <http://ria.ru/> 2016.07.28.

○ 일본 경제산업성, 러시아의 공식 북극대륙붕 초청장 수령

▶ 러시아연방 에너지부 알렉산드르 노박 장관이 일본 기업들이 '가스프롬 네프찌'사의 북극 대륙붕 프로젝트들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야시 모토 일본 경제,무역,산업성 대신에게 발송함. 6월 말에 대륙붕 자산의 일본 기업 유치에 협조해 줄 것을 동 회사가 동 부처에 요청했었다고 부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Interfax가 전함.

일본기업들이 동 회사의 대륙붕 프로젝트를 비롯한 기타 다른 프로젝트를 잠재적 파트너로서 검토할 것이라고 회사 홍보실에서 전함. 서양의 對러 제재와 유가 폭락으로 북극지역 작업은 사실상 축소되었지만, 몇몇 아·태지역 국가들은 현재까지도 러시아 프로젝트들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출처: <http://www.arctic-info.ru/> 2016.07.21.

○ 러시아, 북극 프로젝트에 중국 초청

▶러시아는 LNG 가스 생산플랜트 건설을 비롯한 북극의 모든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중국과 프랑스에 제공한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한 포럼에서 발언했다고 리아 노보스찌가 전함.

중국은 북극이사회의 오픈서버 국가로서 동 이사회 회원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실제 프로젝트에 협력·참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모든 흥미로운 프로젝트에 프랑스 기업들과 나란히 중국 기업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장관이 언급함. 이 프로젝트가 시행될 북극 지역은 러시아에 속해있고 앞으로 러시아에 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법령에 의거해서 시행될 것임. 현재 그 경계가 확장방향으로 명확해 지고 있다고 장관이 말을 맺음.

출처: <http://tvzvezda.ru/> 2016.07.22.

○ 국가북극발전위원회 2016년도 결산회의, 국제포럼에서 개최 계획

▶금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될 제 VI 회 국제포럼 <북극: 현재와 미래> 중에 국가북극발전위원회 2016년도 결산회의가 진행될 예정임. 경제발전부는 동 포럼의 무대가 북극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최대 현안들의 논의 장소로 알려졌다고 판단하고 있음.

2015년도 결산회의 역시 동 포럼에서 진행되었으며, 매년 동 포럼 중에 있는 전체 결의는 동 국가위원회 업무에 채택되었음.

출처: <http://www.forumarctic.com/> 2016.07.15.

<기후 변화>

○ 올해 7월은 북반구 최고 고온의 달로 기록됨

▶금년 7월은 1891년에 시작된 정기적인 지구 기상관측사상 이후 북반구에서 가장 따뜻한 달이었다고 러시아 기상청이 TASS에 전함. 월 평균기온이 작년 기록보다 거의 0.2도 높았다고 연방기상·자연환경 관측청에서 전함.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북반구 월평균 기온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음. 만일 이전에는 지구상에서 전례 없는 기온 상승이 부분적으로 엘니뇨현상과 관련 있었다면, 현재는 그 현상이 이미 끝났는데도, 기온은 예전과 같이 상승하고 있다고 기후학자가 말함.

북극에서 기록된 7월의 최대 이상 현상은 러시아 북부지역, 노바야 제믈랴 제도, 야말 반도, 바렌츠 해, 카라해 지역에서 영상 4-8도까지 치솟고, 알래스카, 캐나다와 그린란드 북극지역에서는 영상 2-5도까지 올라갔음.

출처: <http://ru.arctic.ru/> 2016.08.02.